

4.

여기에서 陰陽五行의 思想, 이른바 샤머니즘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 놓을 시간은 없다. 다만 이 자리에서 긴요하게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은 면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샤머니즘이란 곧 三皇五帝의 政치를 말하며, 그러한 정치, 정확하게 말해서 神託政治는 음양오행사상에 의해 성립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三皇과 샤만과 음양오행이 어떻게 관계되는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개하기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이러한 관계는 곧 三·一哲學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三極(三才)의 原理가 그것이다. 三極이란 곧 天·地·人으로서 이 세계의 원리가 存在의 궁극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다. 즉, 세계의 자리가 있으므로 해서 만물은 완전하게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存在의 存在理由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 자리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三이 아니라, 三이 있으므로 해서 곧 하나가 되는 자리이며 더 나아가서는 無가 되는 그러한 三인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一이 되고 無가 된다고 하더라도 生命의 世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세 자리인 것이다.

첫번째 자리가 天(男性的)으로서 陽이다. 陽은 原因행위를 하는 것이며 朱子學은 이를 理라고 한다.

두번째 자리가 地(女性的)로서 陰이다. 陰은 受動的인 행위를 하는 것이며, 주자학은 이를 또 氣라고 표현한다.

세번째 자리는 人(中性的)으로서 生命이다. 生命은 곧 陰과 陽의 결합으로 인해 탄생하는 結果的 行為이므로 이를 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 세계의 자리를 政治的으로 구성한 것이 바로 三皇五帝인데, 三皇은 곧 天皇, 地皇, 人皇의 세 한울임을 가리킨다. 또 음양오행이라 할 때에도, 첫째 자리가 陽, 두번째 자리가 陰, 그리고 세번째 자리가 곧 五行의 자리가 된다. 그러므로 샤만이라는 것은 곧 세 임금의 政치를 가리키는 말이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의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의 임금이 각기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른바 三權分立의 政치를 곧 샤머니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술은 여기에서는 약한다. 다만 이때의 三權分立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적하는가에 대해서 아는 일은 매우 유익할 것이다. 三皇에 있어서의 첫자리의 임금인 天皇은, 立法權이며, 둘째 자리의 임금인 地皇은 生命權이며 세번째의 임금인 人皇은 行政權의 상징이다.

따라서 이 세계의 권력이 서로 다투지않게 잘 조화시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샤만(巫堂)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筆者: 美術評論家)

이러한 풍경을 建築的인 視角으로 바꾸어 보자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古代神話에서 공통적으로 등장되는 宇宙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말하자면 우주목이야말로 이러한 三·一 哲學을 가장 요령있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의 見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宇宙木, 그것은 세계의 부분으로 구별된다. 즉,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가 그것이다. 이때의 뿌리가 天이며, 줄기가 地이며, 잎사귀가 人이 됨으로 결국 한 개의 나무는 곧 宇宙를 상징하는 동시에 三皇五帝의 神政의 理念을 그대로 表像해 주고 있는 셈이다. 우리들의 檀君神話에 등장하는 神檀樹가 바로 이러한 宇宙木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宇宙木은 人体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오히려 우리들의 人体에서 三·一의 원리, 이른바 음양오행의 세계보다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人体의 머리 부분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며 몸통이 줄기, 그리고 팔다리가 잎사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중요한 부분은 뿌리(頭)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나무는 곧 뿌리가 있고 또 그 뿌리가 튼튼하게 잘 박힘으로써 줄기는 자라고 잎사귀는 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龍飛御天歌는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릴세하고 노래한다. 이를테면 한 나라의 기반을 나무의 뿌리에다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宇宙木을 말하게 된 것은 바로 神政時代의 政治란 이러한 宇宙木의인 질서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나라의 社稷이 있다거나 혹은 임금이 거처하는 그러한 建築物은 반드시 나무의 뿌리로 보았으며, 그런 까닭으로 그러한 건물은 반드시 머리에 해당하는 곳에 건설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머리로서의 建築은 가장 성스러운 건축이므로 반드시 특수한 修飾(裝飾性)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같은 머리로서의 건축에서도 여러가지 職能에 따라, 이를테면 귀, 눈, 코, 입에 해당하는 그러한 건축일 경우, 반드시 거기에 알맞는 意味性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본다. 이것이야말로 神政時代의 이른바 建築에 있어서의 히에라르기적 狀況이 형성되는 理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들이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로 구분되는 神政時代의 建築的 히에라르기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表現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럴것이 우리는 宇宙木의인 질서를 통해서 建築이 하나의 人体와 같은 體系를 이루고 있다는 事實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샤머니즘(大倣敎)의 바이블인 우리들의 <三·一 神話>에는 뿌리(天), 줄기(地), 잎사귀(人)를 각각 ○, □, △의 세 圖像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점은 우리들의 전통적인 美術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결코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基本的인 美術言語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

이 옛 建築을 理解하는데 있어서도 이 세계의 圖像을 理解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럴것이 옛 建築의 裝飾性, 이른바 意味性의 表像은 바로 이 세계의 圖像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세계의 基本的인 圖像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말할 여유는 없지만, 가령 우리들의 闕八天井의 建築樣式은 물론 六角亭이나 八角亭이 주는 形態는 유럽의 둠樣式의 建築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天, 이른바 立法의 理念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神殿이나 宮殿의 柱廊樣式은 기본적으로 □型, 즉 生産의 理念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破風樣式은 바로 △型을 그대로 옮김으로서 결국 人의 理念인 行政을 表像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세가지의 圖像은 결코 기하학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가령 ○型은 天이므로 나르는 鳥類로서 번역이 되며, 또 地로서의 □型은 기어다니는 動物로서 번역이 되고 人으로서의 △型은 나르는 새와 기는 짐승이 합쳐진 모양의 怪獸로서 번역이 된다. 이러한 展望에서 보자면 가령, 天皇이 거쳐 한다거나 혹은 立法을 관장하는 그러한 職能의 건물에는 반드시 ○型의 圖像이 고려되었을 것이며, 地皇이나 또는 그와 맞먹는 生産的인 職能을 상징하는 建物에는 반드시 □型의 圖像, 그리고 人皇이나 그의 行政的인 職能을 상징하는 건물에는 또한 △型의 圖像理念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例證으로서 지금의 寺刹建築이나 宮殿建築을 들 수 있다. 즉, 그러한 建築들은 반드시 이 세계의 기본도상을 한꺼번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붕은 새의 날개, 몸통은 □型, 기둥은 짐승의 다리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몸통과 지붕사이에는 반드시 龍象이 나타나 있다. 이때의 龍이란 물론 나르는 새와 기는 짐승이 복합된 동물로서 그것은 하나의 可能性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生을 의미하는 五行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寺刹이나 宮殿建築이 이렇게 세계의 기본도상을 한꺼번에 表像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만한 사실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샤머니즘은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결코 三極이 하나로 병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세계의 기본도상이 각 기자기의 고유함, 이른바 個別的인 職能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目的을 위해 協業(調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원형적으로는 반드시 ○, △, □의 圖像은 자기 자기의 특수한 건축물을 지녔던 것이라 보아진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샤머니즘이 분열, 쇠퇴함으로써 결국 이 세계의 圖像은 三位一體로서 뭉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때 세계의 圖像이 하나로 뭉친다는 것은 결국 政治的으로 三權分立이 아니라 獨裁政治, 이른바 專制君主政治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옛建築이 宇宙木(人体)으로 비유되는 神政的世界像에 의해 展開되었음을 확인한 셈이다. 요컨대 우리들의 옛建築은 하나의 体系, 즉 空間的으로 하나의 意味綱에 의해 構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展望임에도 불구하고 옛建築을 하나의 單位建築物로 인식하고자 하는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우리들의 옛 건축은 論理的으로 무엇인가 완벽함을 지니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개개의 건축물이 우주목으로서의 체계를 이룩한데 중속됨으로서 스스로 全体性を 승인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경우에 있어서, 이를테면 개개의 건축이 특수한 職能을 맡고 있으므로해서 全体性이 강제할 수 없는 어떤 個體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적인 論理의 표현은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같이 風水地理上의 원리와 또한 圖像學的인 修飾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서 古典的히에라르기의 文脈을 승인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 건축의 진실을 정당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三皇五帝의, 혹은 음양오행적인 히에라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를 밝히는데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여기에서 더 지적할 여유는 없지만 아무튼 거듭확인 할 일은 空間的體系가 우리들 옛 건축의 가장 두드러진 本質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옛 건축을 現代化한다고 할 때, 맨처음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이 空間的體系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때의 空間的體系란 물론 음양오행사상을 기반으로하는 政治體制나 社會構造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世思觀에 대한 우리들의 立場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일이지만 우리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神政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새삼, 그러한 세계관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여러가지로 無理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묵살해 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유혹받는바는 여전히 남는다. 그것은 세계관이라는 말이다.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간에 個人主義時代에 사는 現代人에게 있어선 세계관이란 결코 뿌리칠수 없는 매력적인 말임에 틀림없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주변엔 철저히 개인주의(自由主義) 신봉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 건축을 오늘에 되살리는 문제는 먼저 개인주의나, 世界像이나하는 立場부터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에 선뜻 해답을 내리기에는 그리 쉽지않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현실이 그러한 문제를 선명하게 가려내기에는 여러가지로 복잡한 사정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좀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들의 현실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아직 우리들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된 個人主義나, 그 밖에 어떤 분명한 世界像도 가져본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이것이나, 저것이냐를 묻는다는 것은 아주 어색한 일이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형태이든 世界像을 거부하고, 個人主義的人生觀을 택하게된다면 옛 건축에서 우리들이 물려받을만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옛 건축은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것이며 또한 그 공간은 오늘날 메타포리즘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思隈空間같은 성격으로 특징 지워질 수가 있다. 이미 이 점은 宇宙木의 空間으로서 지적되었지만 가령, 宇宙木의 體系를 고려하지않는 이를테면, 한채의 民家を 놓고 보더라도 이 점은 거의 확실하게 증명된다고 말 할수 있게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된 바이지만 우리들의 전래의 民家構造는 결코 밀폐된 공간이 아니며, □字型的의 마당은 물론이려니와 심지어 사람이 잠자는 방까지도 종이를 바른 문을 택함으로써 어디까지나 개방적인 요소를 지니고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民家에 있어서 개방적인 요소, 이를테면 思隈空間의 요소는 마루와 마당이다. 이 마루와 마당은 결코 個人的인 生活을 目的으로 하는 오늘날의 靚術적인 建築概念으로서는 理解할 수 없는 空間인 것이다. 우리들은 누구나 옛 사람들이 이 마당과 마루를 어떻게 使用했는지를 알고 있다. 한마디로 指摘하자면 그것은 公務的의 空間이며 또한 共戲的의 空間이기도 하다. 이러한 性格은 옛날의 官衙(官衙)의 풍경이 아주 적절한 例証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의 평범한 가정일찌라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옛 가정생활은 그것이 곧 三綱五倫의 規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나라의 아버지는 임금님이지만 가정의 아버지는 곧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더 길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요컨대, 우리들의 옛건축은 철저히 비개인적인 것이므로 거기에서 개인적인 건축미학을 끄집어 낸다거나 혹은 그러한 면을 부활시켜 보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그만이다. 이미 30年代에 朴吉龍은 우리들의 民家を 個人的인 次元에서 수정을 가한 일이 있다. 그의 수정은 결국 思隈的인 공간이었던 마루를 창문으로 막아버림으로서 마당과 마루의 상호 지향성(相互志向性)을 파괴해 버리고 말았다. 물론 그렇게함으로써 그는 우리들의 民家を 완전히 靚術적인 空間建築으로 수정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지적해서 그것은 전통의 부활이 아니라, 전통의 말살을 의미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時点에서 個人主義的인 建築美學이 아니라, 어떤 형태이든 空間的인 體系, 이른바 世界

像을 택하기로 한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역시 이 점이야말로 우리들이 한바탕 열을 올려 불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되풀이 지적하지만 우리들의 옛 건축은 陰陽五行思想을 근간으로 하는 宇宙木의 世界像이 그 美学的인 골격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注目할 점은 宇宙木의 世界像, 이를테면 宇宙木의 空間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陰陽五行思想이란 과학적인 원리이며 그런 의미에서 陰陽五行은 機能主義精神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易象으로 말하자면 陰陽五行은 공기(바람), 불, 물로 표현이 되며, 이때의 공기가 陽, 불이 陰, 물이 五行이 된다. 따라서 옛건축은 本質的으로 이 세가지 原素내지 原理에 근거하고 있으므로해서 우리는 그것이 결국 ڤ르·뵈제가 주장했던 기능주의건축의 원리와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 좀 더 실감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는 더 있다. 즉, 음양오행은 형태적으로는 宇宙木을 나타내며 內容的으로는 人体로 나타난다. 즉, 人体의 모든 기관이 陰陽五行의 原理에 의해서 설명되며, 그러한 설명은 또한 基本的으로 空氣, 불, 물의 세가지 原理에 依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점도 우리는 ڤ르·뵈제의 機能主義 建築思想에서 兪見하게 된다. 그러므로 ڤ르·뵈제가 새로운 建築은 새로운 都市計劃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 우리는 공감을 하게 된다. 그것은 그가 도시를 하나의 機能的인 體系로 보았기 때문이며 결국 그는 個人主義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이든 世界像을 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우리가 ڤ르·뵈제의 이러한 西歐의 建築觀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옛건축을 다시 생각한다고 할 때, 부딪치게 되는 문제는 여전히 空間體系와 機能主義이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떤 형식의 空間的體系를 갖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都市空間의 問題가 될 것이며 어떤 의미에 있어선 메타프리즘의 문제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야기가 그렇게 된다면 機能主義의 問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될 것이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의 옛건축은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즉, 都市空間의 人体化가 그것이다. 이를테면 공기에 해당하는 建築物은 머리에, 불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가슴에, 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팔다리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때의 공기란 물론 정신적인 것이며, 불은 생산적인 것이며, 물은 실천적인 것이다. 따라서 옛 建築, 이른바 宇宙木의 空間建築에 있어선 반드시 空氣에 해당하는 建築物은 乾軸인 南山에다 建設하였으며 불에 해당하는 建築은 또한 坤軸인 北川가에다 建設하였다. 檀君의 神市建設은 바로 이러한 宇宙木의 空間建設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그러한 모델을 찾자면 그것은 당연히 慶州의 南山과 半月城一帶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南山의 수많은 절터야말로 人体의 머리, 즉 空

氣의 空間이며 半月城一帶의 지역이야말로 불의 空間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半月城에서 昔脫解가 治匠을 했다는 전설은 바로 그곳이 生産의 建築物이 있었다는 한 암시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러한 풍경은 모두가 우주목적공간에 있어서의 機能主義의 樣相이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반드시 그와 똑같은 의미의 기능주의方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옛건축의 機能主義가 우리들의 都市空間을 設定하는데 있어서 아주 貴重한 經驗이 될 수 있다는 事實을 인정하면 그것으로서 족한 것이다. 사실 오늘날 美國의 現代建築에서 제기되고 있는 <背景建物>과 <前景建物>의 概念은 바로 이러한 論議의 한 테-마라고 할 수 있다.

## 6

都市空間과 機能主義의 問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必要가 없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썸버리즘(像徵主義)에 대한 문제이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옛 建築이 지니고 있는 형태나 색채나 그리고 갖가지 裝飾을 어떻게 理解하며 또한 그것을 어떤 方法으로 되살려야 하는가 하는 問題이다.

앞에서도 이미 指摘한바 이지만 우리들의 옛 建築에 있어서의 형태나 색채나 혹은 화려한 裝飾은 모두가 陰陽五行의 원리를 表像한 것이며 神政的으로는 立法, 生産, 行政의 三極的인 權力的 職能을 각각 나타내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한 채의 건물을 宇宙木的으로 分析하면 지붕, 집틀, 용마루가 각각 天, 地, 人에 해당되며 裝飾的으로는 지붕이 나는 짐승(鳥羽), 집틀이 기는 짐승, 용마루가 龍으로서 각기 表像된다. 이때의 表像이란 물론 장식적인 의도를 말하는 것이다. 즉, 새가 立法精神의 상징, 비발 짐승이 生産精神의 상징, 그리고 龍이 行政, 이른바 實踐精神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성은 순수형태로서 가령 새가 △형, 비발짐승이 □型, 龍이 △型으로 表像되기도 한다. 실제로 古代그리스나 유럽의 神殿(教會 建築)들은 이러한 상징성을 그 기본적인 建築意慾으로 삼고 있었음이 점차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古典的인 상징주의와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가령 루이스·칸의 □△○型의 상징주의도 결국 그것의 源泉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三極的權力을 나타내는 圖像言語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은 이 세계의 순수도상, 이른바 기하학적도상은 단군시대의 神誌文字였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한글의 基本子音도 이 세계의 기하학적도상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문제는 이 세계의 도상이 분명히 立法(天), 生産(地), 行政(人)의 세 원소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장차 古代文明을 再照明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치않

는다. 물론 이 세계의 기하학적 기본도상은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의 正統的인 宗教인 大倮敎의 바이블인 <三·一 神話>에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의 학자들이 샤머니즘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밝혀지는 셈이다. 즉, 그들이 원하는 샤머니즘의 바이블은 바로 韓半島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를 바른길로 돌려세워 보자. 우리들의 옛건축이 지니는 썸버리즘의 正體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썸버리즘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거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 선택이란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를 가름하는 일이며 스스로 미래가 정립될 때, 자연스럽게 옛 썸버리즘은 활용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국립박물관>이나 혹은 <서울女商>과 같은 괴이한 建築을 보게 되는 것이다. 國立博物館은 흔히 指摘되는대로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의 석조단에다 法住寺의 捌相殿을 그대로 본따온 건축물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히 指摘할수 있는 점은 우선 五層塔의 의미이다. 塔은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그것은 實用性의 建築이 아니라, 意味性의 建築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옛 建築物을 되살린다고 할때,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의 意味性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마 국립박물관을 건축한 사람들 중에 누가 과연 五層塔에 대한 意味性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랴.

五層塔에 대한 意味性은 三國遺事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그것에 관하여 메주알 고주알 따질 여유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三權分立의 神政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박물관은 적어도 그러한 五層塔의 意味性이 확인되었어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서만이 그 五層塔의 형태는 새로운 형태로 되살아 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마 이런 전망으로서 말하자면 <서울女商>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現代式 빌딩 建物에 지붕만을 옛것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의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차적으로 옛 建築에 있어서 지붕이 가지는 意味性을 확인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指摘된대로 날개이며 그 날개는 곧 立法의 精神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하나의 학교건물에 날개만을 表像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가를 마땅히 물었어야 할 일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이르러 다시 色彩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줄로 안다. 그것은 옛 建築의 色彩가 썸버리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옛 색채의 文法을 어떻게 오늘에 되살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로 우리들의 구미를 땡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면관계로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 글을 멈추려고 한다. (끝)

全訂版

## 建築構造學

張起仁 著

高級洋裝 480面

1975年 3月 5日 發行

값 3,900원

發行處： 普 成 文 化 社

연락처 · 73-9492